

순천시 “내 집에 주차장 만들고 보조금 받으세요”

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장 1면 당 최대 200만원 지원 최소 5년간 용도변경 없어야...기능 상실시 보조금 전액 반환

순천시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1년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조성하면 1면 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4면의 단독주택 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현황사진 및 위치도, 사업내용 등)를 작성하여 순천시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실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주차장을 조성 후에는 최소 5년간 용도변경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골목길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에 기여

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올해도 조기 완료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도심 빈공터 주민 자율(임시)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대규모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 주차 공유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작년 기준 150개소 4,600여 주



차면의 공유주차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차장 조성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교통과(061-749-5906)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기자

순천시 교통과(061-749-5906)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국제교류 통역 전문가 양성교육 개강 8월까지 5개월간 비대면 수업

광양시는 지난 6일 전문 통역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통역전문가 양성교육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중급 이상 외국어 실력을 갖춘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4~8월 5개월간 진행된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5일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사전테스트를 마치고, 6일 오전 영어반을 시작으로 첫 수업이 진행됐다.

비대면 수업에도 불구하고 강의의 열정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업은 원활하게 진행됐다.

첫날은 통역에 대한 기본 이해와 마인드 교육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실전 연습을 통한 통역 스킬 향상, 광양시 및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시사, 경제, IT 등 다양한 내용을 교육받는다.

수업에 참여한 영어반 수강생은 “영어 강의는 많으나 통역을 배울 기회는 적는데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광양시에 감사드립니다.”며, “부족한 실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아 향후 광양시 국제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이번 교육은 광양시민의 통역 역량을 끌어 올리고 수준 높은 통역전문가를 양성해 광양시 국제화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수강생 여러분은 5개월간 진행될 교육에 적극 참여해 국제도시 광양 건설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세계 9개국 17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해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한 통역 전문인재를 국제 교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광양=심종섭기자

보성600사업, 올해에도 보성만의 색깔로 피어난다

272개 마을 참여 오늘부터 본격적인 스타트



보성군이 2021년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이하 보성600)사업을 8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성600 사업이란 보성군 전체 600여개 자연마을을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어나가는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작

년에 이어 올해도 272개 마을이 참여한다.

읍면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보성을 산수유 거리 조성, △별교읍 바깥개비 길, △북내면 맥문동꽃길 조성, △득량면 두릅 키우는 마을 △회천면 금화구 거리, △웅치면 명자나무 마을 등이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여수시, 삼동지구에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길 열렸다

여수시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사업에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으로 166억여 원(국비 60, 도비 42.5, 시비 63.6)을 들여 2023년까지 삼동지구에 분해성 고분자 기업지원을 위한 사무동과 실증화동을 구축한다.

컴포운딩, 시제품제작, 분해성 고분자 제품의 제조·생산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여수=오상호기자

고흥군, 신규 배수개선사업 대상지 점암면 강산지구 확정...59억 투입

고흥군은 2021년도 신규 배수개선 대상지로 점암면 강산지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전역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겪는 강산지구 저지대 농경지 일원 배수시설을 개선해 농작물 침수 피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안정적인 영농여건 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고흥군은 전남도 1차 조사결과 입지의 타당성과 사업의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상위순위로 농림부에 제출되어 한국농어촌공사 현장

실태조사, 농림부 최종 검토절차를 거친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금회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금회 확정된 신규 사업은 금년도에는 기 제출된 사업규모 및 사업비(59억원)를 기초자료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적정여부 등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2022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2022년 사업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배수펌프장 신설과 저지대 복토, 용배수로 등을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고흥=김택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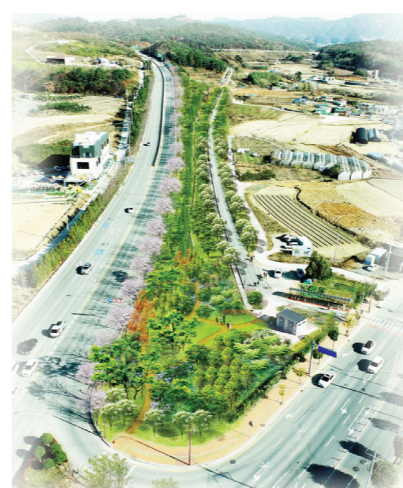
순천시, 7ha 규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순천시는 경전선 폐철도 등 생활권과 율촌산업단지 일대에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노후산업단지와 주요 도로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도심 내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성된다.

순천시는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전선 폐철도 2.4km·지붕로 6.2km·율촌산업단지 7.6km 일대에 가시나무, 느티나무 등 32종 11만 5천 2백여주의 나무를 식재하여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책과 함께 즐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